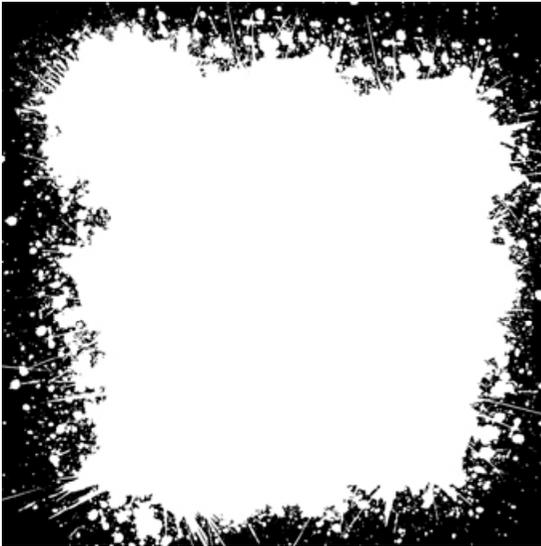


## 무無의 힘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임호경 옮김 |

《개미》의 저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력 사전》을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특히 의식세계에서의 무無가 큰 힘을 발휘하듯, 물질세계에서의 무無도 카시미르의 힘이나 암흑물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 사랑의 네 가지 방식

아동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첫 단계 :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는 아이의 단계다. 아기에게는 뽀뽀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스러운가요?’라고 물으면서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 처음엔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나중에는 자기가 본받고 싶은 ‘특별한 타인’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둘째 단계 :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는 어른의 단계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을 생각하며 감동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의 애정을 특별한 존재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 느낌은 사랑받는 것보다 한결 흐뭇하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것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기분에 취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다.

셋째 단계 :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신의 애정을 남에게 투사하고 나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쏟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단계의 사랑은 앞의 두 단계와 비교할 때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든 주기 위해서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사랑을 주거나 받는 존재에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염려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랑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넷째 단계 : 보편적인 사랑.

이는 무제한의 사랑이다. 애정을 받고 남에게 투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사랑을 자기 주위의 사방팔방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사방팔방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보편적인 사랑을 부르는 이름은 생명, 자연, 대지, 우주, 기, 신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개념을 자각하게 되면 정신의 지평이 넓어진다.

## 거울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像)을 찾는다. 처음에는 부모의 시선에서, 그다음에는 친구들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다가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비춰 줄 하나뿐인 거울을 찾아 나선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좋은 거울'의 발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신의 만족스러운 상을 비춰주는 거울을 찾아냈을 때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평행한 두 거울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상을 비춰 주는 마법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은 거울 두 개를 마주 보게 놓으면 거울 속에 거울이 비치면서 같은 이미지가 무수히 생겨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듯이 〈좋은 거울〉을 찾아내면 우리는 다수의 존재로 바뀌고 우리에게 무한

한 지평이 열린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강하고 영원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두 거울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다. 두 연인은 자라고 성숙하고 진보한다.

그들은 처음에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서로 나란한 길을 따라 나아간다 해도, 두 사람이 반드시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두 사람이 상대의 시선에서 언제나 똑같은 자신의 상을 찾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면 결별이 찾아온다. 나를 비춰 주던 거울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건 사랑 이야기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을 잃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의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 무無의 힘

인간은 오랫동안 진공을 두려워했다. ‘호로르 바쿠이’(진공에 대한 공포)라는 라틴어 표현이 시사하듯, 진공은 고대의 학자들에게 순전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관념이었다.

진공의 존재를 가장 먼저 언급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인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우리가 물질이라고 여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떠 있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파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견해에 맞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웠고, 한발 더 나아가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는 1643년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진공의 존재를 증명할 때까지 무려 2천 년 가까이 유

지되었다.

토리첼리는 길이 약 122cm의 유리관을 수은으로 채운 다음 수은이 담긴 그릇 안에 거꾸로 세웠다. 그러자 유리관 속의 수은이 내려가면서 위쪽에 텅 빈 공간이 생겨났다. 수은 때문에 공기가 유리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 공간은 진공일 수밖에 없다. 이로써 토리첼리는 최초로 지속적인 진공을 만들어 낸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다가 수은 기둥의 높이가 매일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대기압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실험은 수은 기압계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해 뒤에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폰 게리케는 최초의 진공 펌프를 만들었다. 그는 대기압과 진공에 관한 유명한 실험(주1: 오토 폰 게리케가 당시 마그데부르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그데부르크의 반구 실험'이라 불리게 되었다.)을 벌이기도 했다. 구리로 만든 두 반구를 꼭 맞추어 밀착시키고 한쪽 반구에 달린 밸브를 통해 내부의 공기를 빼내고 나자 16마리의 말을 양쪽으로 나누어 끌어당겨도 두 반구를 서로 떼어낼 수 없었다. 이로써 게리케는 진공을 이용해서 두 개의 커다란 물체를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텅 비어 있음은 동양 사상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의 미혹한 생각을 벗어난 상태를 일컬어 진공이라 한다. 노자 역시 '바퀴살 서른 개가 한데 모여 바퀴통을 이루는데 그 한복판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수레가 쓸모를 지니게 된다'(주2: 『노자』 도경 11장)라고 하면서 무의 효용을 역설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총 에너지 가운데 70%는 진공 속에 있고 30%만이 물질 속에 있다고 추산해낸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우주의 진공에 주목했고 진공 에너지의 존재

를 언급했다. 물리학자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 역시 진공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194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헨드릭 카시미르는 진공 속에 두 개의 금속판을 서로 마주 보도록 가까이 놓으면 대단히 미세하게나마 금속판들이 서로 끌어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공 상태에서 ‘카시미르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1990년대에 미국 항공 우주국은 카시미르 힘을 이용한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최초의 우주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이루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냈다.

오늘날 진공 에너지는 천체 물리학의 첨단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한 이론에 따르면 진공이 물질을 만들고 따라서 빅뱅이 바로 ‘무無’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끝) 

- 이 글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베르나르 베르베르 Bernard Werber |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며,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다. ‘별들의 전쟁’ 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을 발행하였고, 이후 올더스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속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다. 1979년 툴루주 제1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 언론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해 오다 드디어 1991년 120년에 가까운 개작을 거친 《개미 Les Fourmis》를 발표,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대작가로 떠올랐다. 베르베르는 현재 파리에서 살며 왕성한 창작력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10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집 《파라다이스 Paradis sur mesure》와 《카산드라의 거울》 등의 작품으로 꾸준히 한국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역자 | 이세욱 |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오를레앙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연작 소설 《개미》(전5권), 《타나토

노트)〈전2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아버지들의 아버지》(전2권), 《천사들의 제국》(전2권), 《뇌》(전2권), 《신》을 비롯하여 《밀줄 긋는 남자》, 《드라큘라》, 《속 깊은 이성 친구》, 《두 해 여름》,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발레 소녀 카트린》 등 다수가 있다.

역자 | 임호경 |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와 동 대학원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파리 8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앙투안 갈랑의 《천일야화》, 로렌스 베누티의 《번역의 윤리》, 다니엘 살바토레 시페르의 《움베르토 에코 평전》, 조르주 샤르파크 외 《신비의 사기꾼들》, 가엘 노앙의 《백년의 악몽》, 베르나르 키리니의 《육식 이야기》, 도미니크 라피에르의 《검은 밤의 무지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3부)과 《카산드라의 거울》, 파울로 코엘료의 《승자는 혼자다》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역자 이세욱, 임호경 | 출판사 열린책들 | 정가 15,800원

베르베르가 열네 살 때부터 기록해온 노트의 내용을 담아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마르지 않는 상상력이 어디에서 발원한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책이다. 그가 30년 이상 계속 써온 노트 속에는 문학, 과학, 인류학, 심리학, 전설, 신화, 연금술, 처세, 게임 등 온갖 분야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지식이 가득하며, 이 책은 그가 기록한 383편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책에는 그가 스스로 떠올린 영감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발상과 관점을 뒤집게 하는 사건들, 생각을 요구하는 수수께끼와 미스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해석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외에도 그의 '백과사전'에는 과학 저널리스트와 작가로 활동하며 경험한 이야기와 발견, 연구의 결과물들이 더해져 있어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는 기록을 만나볼 수 있다.

인간은 왜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지, 쥐들의 세계에 어떻게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교황을 선출할 때 왜 남성성을 확인하는 기이한 절차가 있는지, 베르베르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생각의 맹점을 짚어내거나 새로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며, 이를 통해 발상을 전환하고 상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